



## 성 안토니오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Fr. Christopher Shorrock, OFM Conv., CNSA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0년 2월 15일에 행사를 기념하는 끈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총회장인, 카를로스

트로발레릴리(Carlos Trovarelli)에게 보내신 편지에 말씀하신 것처럼 파두아의 성 안토니오 성인의 프란치스코 성소의 8세기째가 되는 해입니다.

1220년 1월 16일, 젊음 아쿠스티누스 참사 수도회의 사제였던 페르난도 마르친스 드 블하오는 모로코에서 다섯명의 프란체스코 선교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프란체스코 회에 입회하기로 결정하였고, 후에 파두아(이탈리아명은 파도바)의 안토니로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1231년 6월 13일에 아르첼라에 있는 클라라 수녀회에서 35세의 나이로 선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후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탈리아의 스폴레토에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에 의해 1232년 5월 30일 성인품에 올랐습니다

교황 비오 12세는 1946년 1월 16일에 안토니오 성인을 교회박사로 선언했고, 그분의 글에서 복음의 신선함과 아름다움이 우리나라에 복음적인 박사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인기있는 성인이고, 훌륭한 설교자이며, 위대한 기적의 일꾼이며 깊은 신학자, 학식있는 교사로 여겨졌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에 대해 덜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는 성모 마리아께 대한 그의 큰 헌신일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서 성모님에 대한 많은 언급과 성모님에 대해 말한 열정적인 표현 때문에 그분이 자주 인용하는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 성인처럼 두번째의 성모님의 박사로 불릴 수 있습니다

성모님에 관한 성인의 교리 출처에 관련하여, 우리는 안토니오 성인의 성모 마리아님에 대한 여덟개의 설교<sup>1</sup>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모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개, 수태고지 세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에 관하여 세개, 그리고 성모님의 승천에 대한 한개의 설교입니다.

그분의 기적에 관한 설교들엔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의 제외하고도 우리는 많은 주일 설교과 축일 설교에서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에 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셋째 주일 설교에서 이러한 본문이 나옵니다. “당신을 낳아서 젖을 먹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합니까?”(루가 11:27)

이것들은 주일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대축일 설교들 중에는 다른 네개의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에 관한 내용과 수태고지에 관한 여섯개의 추가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의 신비에 관한 설교는 성모님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현 대축일, 부활절의 설교들이 그렇습니다.

한 작가는 안토니오 성인의 삶 전체가 복되신 성모 마리아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모님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삶 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성인은 전해진 바에 의하면 1195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무어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알폰스 1세가 성모님께 헌정한, 12세기 말부터 “마리아의 땅”으로 알려진 포르투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고향인 리스본에 있는 대성당은 성모승천을 기념하여 바쳐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도나 마리아는 마니피캇을 외우면서 원죄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상 앞에서 그녀의 갓난 아들을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성모 승천 대축일후 8일째 되는 날, 오늘날에는 성모님께서

여왕이심을 기념하는 축일로 봉헌된 날에 세례를 받았습시다

고대의 구전에 따르면 안토니오 성인의 첫 말은 성모님께 대한 기도,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오 나의 영광스러운 여인이여” 란 노래에 담긴, 어린 시절 그가 정결을 봉헌한 그의 여왕에게 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복되신 성모 마리아에 대한 안토니오 성인의 후기 설교는 실제적이고 신학적으로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한 벨기에 프란치스칸은 “안토니오 성인의 설교는 우리에게 완벽한 성모 신학을 전해준다” 라고 주장하는 데 학자로서의 명성을 걸 수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성인의 이탈리아 전기 작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모님의 삶 안에는 안토니오 성인이 한 두 페이지를 바치지 않은 특색이 없던 적이 없었다. 성모님 삶 안에서 그가 깊이 연구하지 않았거나, 청중에게 응하여 설명하지 않았던 신비는 하나도 없었다. 그는 성모님에 대한 헌신을 심어주거나 성모님께 대한 숭배를 전파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열의를 바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분이 설명하지 않은 가톨릭 교리가 있다면, 그분은 아마도 성모님을 언급하는데 그 교리들을 사용하고 싶었을 거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안토니오 성인의 성모 신학의 출처는 성경과 전통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자주 인용하였기에 성모 신학적 성경이라고 불리울만 합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9 세는 그 점을 인용하여 성인을 성경을 보관하는 “계약의 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저자는 복음주의의 학자의 성모신학에 관한 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성경의 해석자로서의 능력을 드러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문자적 의미의 탁월한 사용과 가장 훌륭한 전형의 일부가 그의 설교에서 발견됨을 관찰 할 수 있다. 그가 성모님에 대해 말할 때, 성인은 성모님을 찬미하는 자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성인에게 복되신 동정녀는 모든 창조물의 여왕이며,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성모님의 여왕으로서의 특권은 그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상기되곤 했다. 성경은 다른 문제에도 성인께

영감이 되어주었던 것처럼, 그분이 성모님의 탁월함을 묘사하기 위해 찾았던 문구를 그에게 제공한다

전통에서 취한 논쟁에서 안토니오 성인은 특히 위대한 성모 신학 박사들, 즉 성 아우구스티노, 성 요한 다 마신, 성 베다 존자, 성 안셀름을 인용했으나 무엇보다도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의 글들을 가장 많이 차용했습니다.

성인의 성모 신학은 중세 학자들이 받아들인 모든 믿음을 포용 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대를 훨씬 뛰어 넘습니다. 수세기 후에 교리로 정의되고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성모승천) 오늘날 가톨릭 교리와 공통 신학적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교리로서 충분히 시사되었거나, 또는 다양한 새로운 칭호 아래 성모님에 대한 헌신으로

구체화된 교회의 현 전례 체계의 일부로, 마치 창공에 최근에 발견된 별들처럼, 성모님의 왕관에 새로운 보석이 추가되듯이 성모님의 존재를 세계 구원의 협조자로, 은총의 중재자로 받아들이는 교리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의 중심이되는 안토니오 성인의 성모 신학의 기본 원리는 성모님의 신성한 잉태와 구세주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이것을 마지막 주장으로 확고히 하여, 성모님의 다른 모든 특권을 이 기본 원리로의 입문이나 그 이후를 위한 것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가족과,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안토니오 성인의 모범이 그분의 진리와 정의를 위한 열정과 함께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형제애의 표시로 우리 자신을 바치겠다는 관대한 약속을 불러 일으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고는 크리스 신부님의 안토니오 성인의 성모 신학에 관한 훨씬 더 큰 집필 작업의 서문입니다. 크리스 신부님은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위스콘신에 있는 예수 성심 신학교 신학과 의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sup>1</sup> 네권의 시리즈로 된 파두아의 성 안토니오의 주일과 대축일을 위한 설교집 참조, 번역 폴 스피스버리(Padova: Messaggero Di Sant'Antonio, 2007).

